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2호 2008.12.18~2008.12.24

I. Analysis Overview 1

II.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7
3. 소비자동향 9
4. 언론동향 14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III. 해외 동향 18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23

I. Analysis Overview

<국 내 동향>	4
[산업 정책 및 제도]	4
- 김평수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문방위 접수	4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법적 근거 등 문화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과 문화산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근거 마련한 개정안이 12월 24일 문방위에 접수.	
음악저작권협회의 장나라 6집 판매금지소송, 해프닝으로	6
장나라 6집에 대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신청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	
음저협 - 지상파 방송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	7
아이뉴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와 음저협은 음악 사용료 분쟁에 관련,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음악업계 동향]	7
- 김 훈	
메가TV,메가쇼케이스 서비스를 통해 음악콘텐츠 강화 추진	7
KT24일부터 메가TV에서 KTH와 함께 뮤지컬 '젊음의 행진' 쇼케이스를 '음악' 내 '메가스페셜-메가쇼케이스' 메뉴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주요 음원 유통채널 2008년 음원 판매량 증가	7
KTF뮤직은 디지털음원매출로 2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30억 원 증가, 엠넷미디어도 올해 3분기까지 매출 194억 원을 올려...	
포털 음원 필터링 실시로 유료 온라인 음원 사이트 반사이익 예상	8
포털사이트들이 음원 필터링을 23일부터 본격 실시함에 따라 유료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이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	
일본가수들 한, 일 음반동시 발매	8
오오츠카 아이의 5집 앨범 '러브레터'(LOVE LETTER)가 오는 17일 발매에 이어, 일본그룹 '걸 넥스트 도어' 첫 정규 앨범 24일 발매.	
패션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비	8
비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패션브랜드 '식스투파이브'(6to5) 론칭쇼를 열었다.	
기타 단신 등	9
- 윤상 5년 만에 앨범발표	
- 음악감상이 가능한 다기능 8인치 디지털 액자 출시	
[소비자 동향]	9
- 서상아	

음반동향 '오디오형 가수들의 음반 강세' 9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음반에서 강세를 보이는 오디오형 가수들의 강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차트로 진입한 이소라와 윤상, 정엽의 앨범은 음원동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면모를 음반 판매량에서 보여주고 있다.

애절한 발라드의 강세 12

<총 맞은 것처럼>의 1위 행진이 계속되면서 애절한 발라드들의 순위 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말 분위기를 내는 곡들과 신나는 멜로디의 피쳐링 곡들이 음원 강자를 노리고 있지만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민경훈의 <하루> 같은 발라드 곡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

[언론 동향] 14

- 박진석

검찰, '저작권 침해 방조' 포털에 첫 형사 처분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파일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8일,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과 다음의 임원진, 실무진 3~4명을 각각 소환 조사,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

포털업계, 불법 음원 차단 시스템 일제히 가동 14

NHN(네이버)과 다음 등은 최근 불법음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차단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 자구적 노력에 본격 착수했다.

주요 단신 15

-유인촌 문화부장관 인터뷰 "클래식이다, 대중음악이다를 가를 필요는 없지만 공연장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트렌드 음악의 음악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다양성 확보 필요.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 장정희

보아-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 대통령 표창 16

12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식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올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파워맨 선정 16

제8회 `2008 게임음악회`가 20일 강원도에서 열렸다 16

디지털타임스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일보, AM7, 문화체육관광부, 현대성우리조트 등이 후원하는 `2008 게임음악회`가 20일 강원도에서 열렸다.

<해 외 동 향> 18

[해외 음악산업 동향] 18

- 고민정, 장정희

아날로그 음악 산업의 사양화와 디지털 음악 산업의 성장 18

- 음반 판매 저조 - 롱테일 법칙을 뒤집다.
- Warner Music이 YouTube에서 자사 뮤직비디오를 삭제하다.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19

- 자유로운 음악 다운로드 모바일까지,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아직.
- Facebook의 Project Playlist 폐쇄.

디지털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20

- 유럽에서 아이튠은 여전히 독주 중.
- 음악 사업의 새로운 시장, 게임 !

미국음반산업협회, 집단소송을 단념하다 21

미국음반협회(RIAA)는 소송이 아닌 유연한 방법으로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 나설 것을 언급.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첫 디지털판권보호 연구보고 발표 23

"2008 첫 번째 중국 판권연회(2008首届中国版权年会)"가 최근 북경에서 "인터넷환경에서의 판권보호"(“网络环境下的版权保护”)라는 테마로 개최.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23

- 고민정, 김평수

물지마 '한류 여행상품', 한류열풍에 찬물 23

국내 여행사, 가수 '비' 측과 협의 없이 패션브랜드 런칭기념 패션콘서트를 여행상품으로 판매하여 일본관광객 항의소동.

한류 붐, 중국에 이어 미국 음악 산업에 까지 이어질까 24

국내 음악시장을 주도하는 JYP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등은 최근 한류의 해외 음악시장 진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Ⅱ. 국내 동향

1. 산업 정책 및 제도

1.1 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문방위 접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하 문산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에 접수되었다. 12월 24일 김금래 의원 등에 의해 제안되고 국회문방위에 접수된 문산진흥법의 개정안은 문화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신설되어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완성보증계정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논의되던 문화상품 완성보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으며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12일 정부제출개정안의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신설 내용과 지난 12월 1일 진성호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한다는 개정안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사실상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관해 제출된 개정안들에 대한 통합개정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문화산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관련자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금래의원등 11인

제안일 : 2008-12-24

제안이유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한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방식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을 기업 내부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아 세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다수의 기관으로 각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성보증계정의 설치(안 제10조의2 신설)

- (1)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은 불확실성이 높아 제작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 또는 용자를 받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2)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3) 문화상품 투자위험도의 감소에 따라 투자환경 조성 및 문화상품 제작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정 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한 조치(안 제12조의2 신설)

- (1) 영화, 방송,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산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개정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등(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 (1) 문화상품에 대한 우수한 제작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상품 제작자를 선택적으로 육성·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 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기술 개발자를 우수 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 (1) 무형자산인 문화콘텐츠는 객관적 가치의 산정이 어려워 우수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2)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금융기관·투자자 등에게 문화콘텐츠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안 제17조의3 신설)

- (1)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창조성이 중요하나, 기업의 창작개발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한 실정임.
- (2)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작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안 제17조의4 신설)

- (1) 창작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 (2)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3)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중소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투자금 회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

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안 제28조의3제3항)

- (1) 문화산업의 지역별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 (2)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안 제31조)

- (1)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관련 콘텐츠 진흥기관은 방송·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수의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각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업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2) 다수의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3) 이에 최근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융합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콘텐츠 진흥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함.

1.2 음악저작권협회의 장나라 6집 판매금지소송, 해프닝으로

장나라를 괴롭혀왔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해프닝으로 종료되었다.

장나라의 부친인 주호성씨는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상대방 변호사가 소송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신청인 취하’의 사유로 소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은 지난 9월 협회가 관리하는 ‘사랑을 믿어요’(If you ask me to)가 지난 3월 발표된 장나라 6집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무단 수록됐다며 음반제작사 등

을 상대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장나라를 괴롭혔던 소송 일단락! [경향신문 2008.12.24 (수) 오후 7:56]

장나라측 "6집 앨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해프닝" [아시아경제 2008.12.24 (수) 오후 2:24]

1.3 음저협 - 지상파 방송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

아이뉴스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와 음저협은 음악 사용료 분쟁에 관련,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저작권산업과장은 "양측이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최근 음저협의 조정 요청이 있었으며 방송사가 이에 응할 경우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위, 음저협-지상파 방송 저작권 분쟁 조정 [아이뉴스24 2008-12-22 13:00]

2. 음악업계 동향

2.1 메가TV, '메가스페셜-메가쇼케이스' 서비스를 통해 음악콘텐츠 강화 추진

KT(www.kt.com)는 24일부터 메가TV에서 KTH와 함께 뮤지컬 '젊음의 행진' 쇼케이스를 '음악' 내 '메가스페셜-메가쇼케이스' 메뉴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메가스페셜-메가쇼케이스'는 매월 격주로 인기 가수나 뮤지컬 쇼케이스를 방영하고 앨범 발매 전 메가TV를 통해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뮤지컬 제작사나 음반기획사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어 메가TV 고객들을 상대로 새 작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가TV는 인기가수의 앨범발매와 연계된 핵심 콘텐츠를 직접 확보하는 동시에 KT 그룹 내 콘텐츠를 홍보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메가TV, 뮤지컬 <젊음의 행진> 쇼케이스 방영!! [스포츠조선 - 2008년 12월 22일] 외

2.2 주요 음원 유통채널 2008년 음원 판매량 증가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사이트 KTF뮤직은 디지털음원매출로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3분기까지 27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30억원 증가다.

엠넷미디어도 포털매출(스트리밍 다운로드)로 올해 3분기까지 매출 194억원을 올려 지난해

(130억원)보다 64억원을 더 벌었다.

음악시장의 주도권은 대형기획사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 KTF도시락에 따르면, 올해 원더걸스의 '소 핫'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1위를 차지했다. 점유율 14.4%다. 2위는 빅뱅의 '하루하루'(점유율 12%), 3위는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점유율10.5%) 등 아이돌 그룹이 음악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모두 SM, JYP, YG, 등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있는 가수들이다.

[관련기사]

활력·아이들·후크송..2008 가요 3대 키워드 [뉴스시스 연예 | 2008.12.20 (토) 오전 8:57]

2.3 포털 음원 필터링 실시로 유료 온라인 음원 사이트 반사이익 예상

포털사이트들이 음원 필터링을 23일부터 본격 실시함에 따라 유료 온라인 음원 사이트들이 직접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리바다, 뮤즈, 벅스 등이 이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원필터링은 불법 음원의 경우 포털 내에서 재생 및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제한되게 하는 기술로 현재 네이버 및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이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뮤레카와 제휴를 맺고 23일부터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네이버, 저작권 위반 음원 유통 차단 기술 도입 [뉴스와이어 2008년 12월 23일]
소리바다, 포털 음원 필터링 실시 '수혜' [광남일보 - 2008년 12월 22일]

2.4 일본가수들 한, 일 음반동시 발매

실력파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5집 앨범 '러브레터'(LOVE LETTER)가 오는 17일 발매에 이어, 일본그룹 '걸 넥스트 도어'의 첫 정규 앨범 '걸 넥스트 도어'(GIRL NEXT DOOR)도 오는 24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발매된다.

- 동방신기, 보아 등의 한국가수들 역시 현재 일본과 한국에서 앨범을 동시발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적었던 일본가수들의 한국 진출이 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 패션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비

비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패션브랜드 '식스투파이브'(6to5) 론칭쇼를 열며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는 이 브랜드의 전속모델이자 디자이너로서 활약하고 있다.

'식스투파이브'는 비의 소속사 제이툰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제이툰크리에이티브가 만든 의류 브랜드다.

- 스타성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영역 확장은 한국에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기업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형성되어 있다. 비의 경우는 기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기업적 차원에서 런칭이 이루어지는 사업 확장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비, 패션브랜드 런칭 “첫해 매출액 목표는 100억원” [2008.12.23 (화) 오후 5:39 뉴스엔]

2.6 기타 단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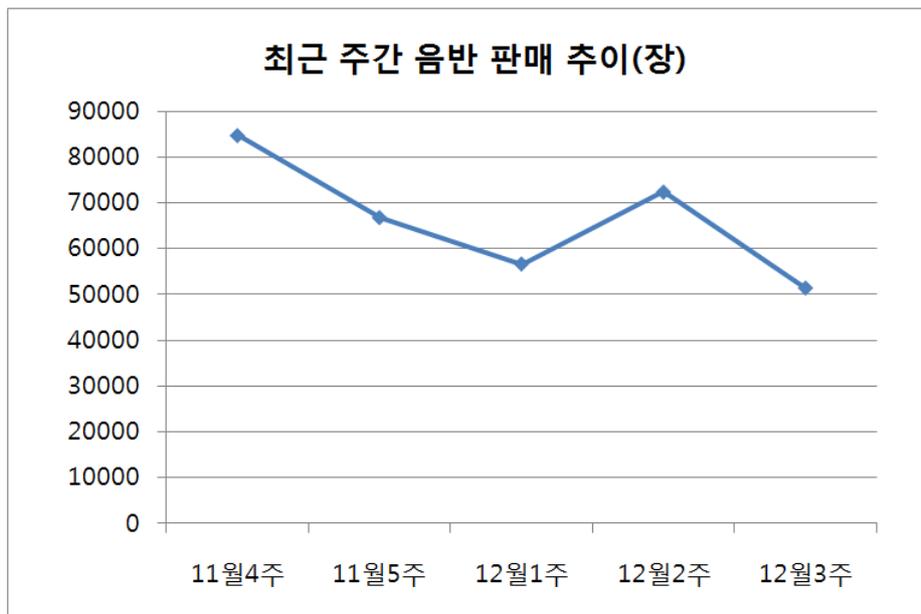
- 윤상 5년 만에 앨범발표 : 소녀시대·유희열·윤건 등이 참여한 헌정형식의 '«Song Book: Play With Him!» (예당엔터테인먼트)'앨범을 발표했다.

- 트랜센드(www.transcend.co.kr)가 음악 감상이 가능한 다기능 8인치 디지털 액자 '트랜센드 PF810'을 출시. 이 디지털 액자는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드라이브에 담겨진 모든 음악과 사진, 동영상의 자동재생.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오디오형 가수들의 음반 강세

12월 3주(12월 18일 ~ 12월 24일)는 지난 주 약간 상승했던 음반 판매량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위부터 20위까지 음반 판매는 약 5만 장을 약간 웃도는 가운데 지난 주 일시적 상승 이전의 판매량 보다 더욱 떨어진 수치를 기록하였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18일 - 24일)

이번 주 음반차트에서 눈여겨 볼만 한 이슈는 이소라 7집의 선전이다. 오랜 휴식기를 지나

12월 17일 발매된 이소라의 7집 앨범은 음원을 선 공개하는 마케팅이나 별도의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매 첫 주 2위에 올라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이소라의 팬 층이 음반 판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과 듣는 음악을 원하고 있는 청자들의 선택적 구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발라드가 강세를 보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막강한 경쟁구도를 이룬만한 신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소라 7집의 초반 강세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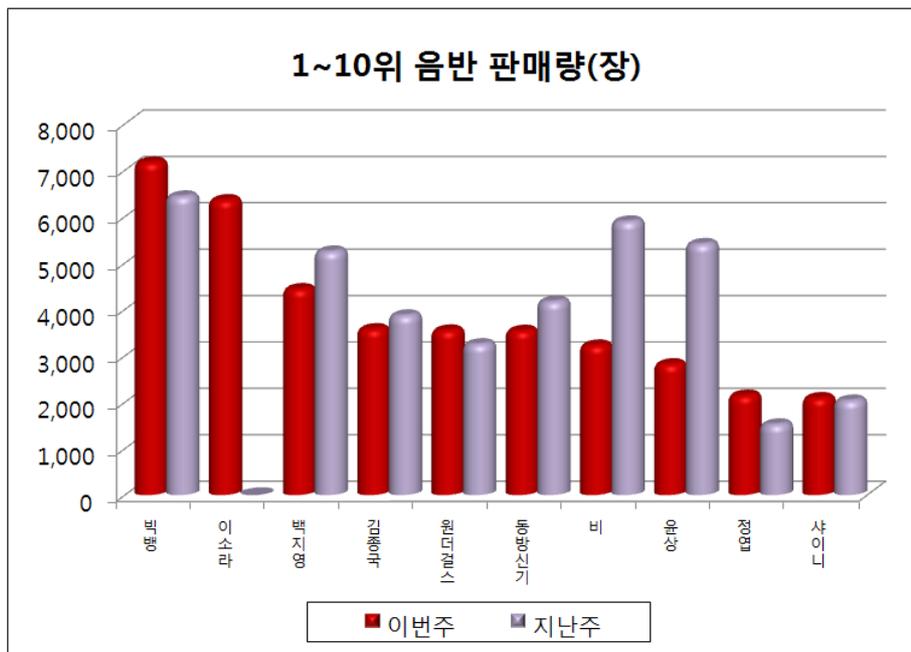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1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7,168	6,439	2008/11/5
2	진입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6,358	0	2008/12/17
3	▲3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4,441	5,251	2008/11/14
4	▲4	김종국 5집 / Here I Am	엠넷	가요	3,577	3,874	2008/10/22
5	▲5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3,550	3,253	2008/9/30
6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A버전	에스엠	가요	3,543	4,171	2008/9/26
7	▼4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3,226	5,899	2008/10/15
8	▼4	윤상 / Song Book : Back On Me	예당	가요	2,821	5,413	2008/12/11
9	▲6	정엽 1집 / Thinkin' Back On Me	엠넷	가요	2,146	1,525	2008/11/4
10	▲2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 A버전	에스엠	가요	2,092	2,038	2008/8/29
11	▲7	씨야 3집 / 돌풍	엠넷	가요	1,525	1,336	2008/9/30
12	▲4	빅뱅 미니앨범3집 / Stand Up	엠넷	가요	1,498	1,444	2008/8/8
13	▼2	넥스트 6집 / 666	포이보스	가요	1,491	2,578	2008/12/9
14	▲7	황프로젝트 With 박효신 1집 / Welcome To The Fantastic World	비타민	가요	1,390	1,147	2008/11/26
15	▲2	카라 미니앨범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1,363	1,363	2008/12/4
16	▼7	김경록 1집 / People & People	소니	가요	1,309	3,658	2008/12/16
17	▲4	슈퍼주니어 해피 / 요리왕	에스엠	가요	1,147	1,093	2008/6/5
18	▼5	에프티아일랜드 2집 / Colorful Sensibility	엠넷	가요	1,120	1,660	2008/8/25
19	▼5	윤종신 11집 / 동네 한 바퀴	로엔	가요	1,093	1,633	2008/11/26
20	▼19	SS501 / U R Man : 스페셜앨범	로엔	가요	1,066	13,108	2008/11/24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2월 18일 - 24일)

전체 음반 판매량 추이에서도 나타나듯이 1위에서 10위 사이의 음반들 역시 지난주에 비해 판매량이 현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1위를 차지한 빅뱅 2집만이 판매량이 늘었을 뿐 다른 가수의 음반들은 천 장 이상씩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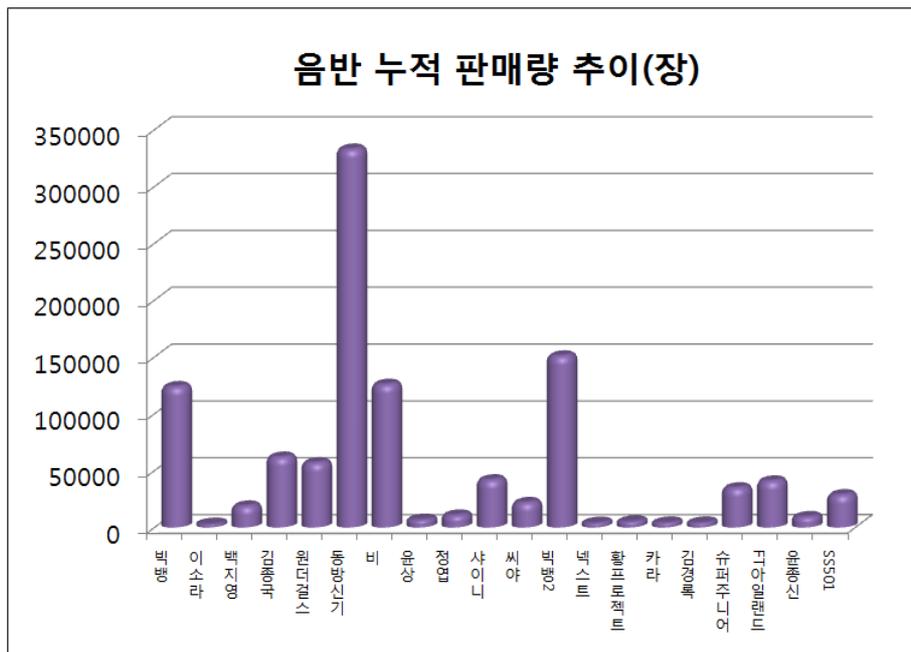
이는 상대적으로 음반보다는 공연이나 영화 등으로 대중들의 눈길이 많이 돌아가는 시즌 특성이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강력한 신보 음반이 나오지 않은 채 기존 음반들의 차트 체류가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듯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음반 판매에서 강세를 보이는 오디오형 가수들의 강세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 음반을 출시하면서 새롭게 차트로 진입한 이소라와 윤상,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정엽의 앨범들은 음원동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면모를 음반 판매량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2월 18일 - 24일)

음반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각 음반의 발매 당시부터 12월 24일까지의 누적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주와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33만 장을 기록했던 동방신기의 경우 3천 장 정도가 증가하였고 빅뱅 역시 비슷한 정도의 증가량을 보였다. 이 같은 기록은 전체적인 음반 판매량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2월 24일)

금주 음반 소비자 동향은 콘서트의 개최 수가 많아지고 뮤지컬과 같은 공연계의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연말 시즌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음반 판매량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이는 깊어지는 불황 속에서 기존 스타디셀러의 차트 내 체류가 길어진 것과 더불어 크리스마스과 연말을 겨냥한 공연과 콘서트 등이 성황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음반 판매가 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3.2 음원동향 : 애절한 발라드의 강세

12월 3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이 전 차트를 석권하였다.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총 맞은 것처럼>의 1위 행진이 계속되면서 애절한 발라드들의 순위 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 차트에서 강세를 보였던 빅뱅의 <붉은 노을>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경훈의 <하루> 같은 발라드 곡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져 오면서 캐롤 분위기를 내는 곡들과 신나는 멜로디와 랩이 어우러진 피쳐링 곡들이 음원 강자를 노리고 있지만 침체된 경기 탓인지 음원 순위 내에서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상대적으로 발라드 곡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 음원 소비자들 역시 연말 분위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순위	박스 12/12 ~ 12/18	엠넷 12/15 ~ 12/21	도시락 12/15 ~ 12/21	멜론 12/14 ~ 12/20
1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2	린 / 매력쟁이	빅뱅 / 붉은노을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 노을
3	케이윌 / 러브119	SS501 / U R Man	SS501 / U R Man	케이윌 / 러브119
4	카라 / Pretty Girl	린 / 매력쟁이	빅뱅 / 붉은노을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5	팀 / 나란 사람	카라 / Pretty Girl	민경훈 / 하루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6	빅뱅 / 붉은 노을	민경훈 / 하루	동방신기 / 주문	원더걸스 / Nobody
7	민경훈 / 하루	케이윌 / 러브119	린 / 매력쟁이	린 / 매력쟁이
8	SS501 / U R Man	럼블피쉬 / 비와 당신	케이윌 / 러브119	SS501 / U R Man
9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이수영 / 이런 여자
10	가비엔제이 / 착한 사랑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카라 / Pretty Girl
11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원더걸스 / Nobody	비 / Love Story
12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비 / Rainism	손담비 / 미쳤어
13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비 / Rainism	M.C the Max / Goodbye To Romance	은지원 / Dangerous
14	박지현 외 / Happy Together	이수영 / 이런 여자	박정현 / 윈터키스	브라운아이드걸스 / 어쩌다
15	브라운아이드걸스 / 좋은날	M to M / One Day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휘성 / 별이 지다
16	M to M / One Day	원더걸스 / Nobody	이수영 / 이런 여자	나몰라 패밀리 / 붙잡아도
17	마이티마우스 / 패밀리	이승철 / 듣고 있나요	박지현 외 / Happy Together	환희 / 내 사람
18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동방신기 / 주문	동방신기 / Wrong Number	언터처블 / It's Okay
19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Tei / 기적 같은 이야기	럼블피쉬 / 비와 당신	Tei / 기적 같은 이야기
20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백찬 외 / 무슨 사랑이 그래요	영준 / 왜	태연 / 들리나요

출처 : 박스, 엠넷, 도시락, 멜론

음원사이트 별로 살펴보면 박스의 경우 새로운 신곡들이 차트 안으로 많이 진입한 모습을 보였지만 멜론의 경우 기존 곡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또한 4개의 사이트 모두 일정한 패턴의 순위를 보이기도는 다양한 곡들이 포진하는 혼돈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다.

줄어들긴 하였지만 꾸준한 판매량과 충성도를 보이는 음반 판매량과 달리 음원 판매의 경우 <총 맞은 것처럼>과 같은 발라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러 장르와 색깔의 다양한 곡들이 차트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한 곡만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음원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4. 언론 동향

4.1 검찰, '저작권 침해 방조' 포털에 첫 형사 처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악파일 불법 유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8일,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과 '다음'의 임원진, 실무진 3~4명을 각각 소환 조사 하였으며 결국 23일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사를 통해 검찰은 NHN(네이버)에 올라와있는 1000만개의 음악파일(약 25테라바이트)가운데 약 65%가, 다음의 경우 340만개의 음악파일(약 10테라바이트) 중 60%가 불법 음원인 것으로 파악 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두 대형 포털이 그동안 저작권협회의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저작권 위반 행위를 묵인해왔으며,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방관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러한 사법 처리에 대한 결정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음악 혹은 영화 파일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업로드 하여 처벌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해 검찰이 직접 형사 책임을 물은 선례가 없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음악업계에 새로운 파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조선일보'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포털을 사법처리한 것은 세계 최초"라며 "포털들이 불법 음원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 저작권법 준수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일보'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형석 법무팀장은 "불법 파일 다운로드를 방조했던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했던 것처럼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포털사 들이 저작권자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도 보상은커녕 사과도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검찰, '음원 불법유통 방조' 네이버·다음 대표 소환 [세계일보 2008-12-18 20:42]
 "음원 불법유통, 포털도 책임" [mbn TV 2008-12-18 20:40]
 카페·블로그 음악파일 불법유통 방조 [서울경제 2008-12-18 20:36]
 검찰, NHN·다음 대표 소환 [매일경제 2008-12-18 17:48] 외.

4.2 포털업계, 불법 음원 차단 시스템 일제히 가동

NHN(네이버)과 다음 등은 최근 불법음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차단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자구적 노력에 본격 착수했다. 이것은 23일 검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각각 1억 2000만원씩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네이버'의 경우 음원 저작권 모니터링 전문업체인 '유레카'와 제휴를 맺고 23일부터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NHN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 전체를 게시 중단하던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 침해 음원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침해 음원 차단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3일, 온라인 저작권 관리 업체인 '엔씨스'와의 제휴로 음원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사이트 내의 카페와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그 영역을 음원 외에도 지상파 영상, 케이블 영상, 스포츠 영상까지 확대해 나갈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뉴시스'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수백만 건 중 수천 건, 수백 건이 누락된 것은 필터링 작업에서의 실수, 또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누락된 것뿐이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포털 담당자는 방조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 포털 사이트들의 행보는 저작권 수호를 위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네티즌의 창작물에 대한 침해의 최소화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은 물론 음원 등 콘텐츠의 이용자와 저작권자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 포털 저작권 침해 혐의 첫 처벌 [국민일보 2008.12.23]
 네이버 "저작권 위반 음악 못들어요" [이데일리 2008-12-23 11:50]
 포털업계, "불법음원 필터링 강화... 위반 방조 혐의 치나쳐" [뉴시스 2008-12-23 20:38]
 다음커뮤니케이션, 불법유통 음원 다운로드 금지 [마이데일리 2008-12-23 18:45] 외.

4.3 주요 단신

유인촌 문화부장관 인터뷰

"클래식이다, 대중음악이다를 가를 필요는 없지만 공연장을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대중예술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연장을 특성화시켜야 한다"

[관련기사]

유인촌 "안정되게 문화체육관광부 끌고갈 수 있어 안심" [뉴시스 2008-12-19 16:24]

트렌드 음악의 음악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다양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

[관련기사]

[2008연예계 결산]⑤잃은건 음악성, 남은건 브랜드 [세계일보 2008-12-22 20:33]
 잊지 말고 다시 봐주세요..2008 숨겨진 음반들 [스타뉴스 2008-12-19 09:50]
 [프리즘] '실력파언더-중고신인' 2008 값진 수확 [스포츠서울 2008-12-22 11:57]
 방송출연 없이도 음원차트 휩쓴 '돌풍'들 [마이데일리 2008-12-23 09:23] 외.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보아-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 대통령 표창

보아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가 한류 붐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2월 22일 오후 서울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식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08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는 보아, 동방신기 등 가수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류 붐 조성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주인공이 됐다.

또한 이날 국무총리 표창은 최관호 (주)네오위즈게임즈 대표와 만화가 김동화씨가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김유라 (주)티쓰리엔터테인먼트 온라인사업본부장, 김유경 (주)부즈 부사장, 넬슨 신 (주)에이컴프로덕션 대표, 정도안 데몰리션 대표, 홍석화 (주)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 대표, 김경훈 (주)에감 대표가 받았다.

또 특별상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상은 홍재철 아이세움코믹스 대표, 김기서 (주)월메이크 고문, 서영주 (주)화인컷 대표, 김두희 (주)동아사이언스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자 포상식은 지난 2002년 처음 제정돼 7회째를 맞이했으며,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수출유공, 국가 이미지 제고, 산업발전 유공, 신 분야 개척, 해외홍보 등 5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출 역군을 선정해 시상해왔다.

[관련기사]

SM 김영민 대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인정 대통령 표창 [중앙일보 2008-12-22] 외

5.2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올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파워맨 선정

빅뱅과 JYP엔터테인먼트는 '올해의 스타대상'과 '2008 한국 엔터테인먼트 파워맨'에 꼽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올해의 스타상'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영화 드라마 가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제작자,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방송사 CP, 연예기자 등 업계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JYP엔터테인먼트(박진영)는 23명의 지지를 얻어 올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관(혹은 인물)으로 선정됐다.

[관련기사]

[올해의 스타상] "내년 본격 해외진출 결과 나올 것" [스포츠한국 - 2008년 12월 23일]

5.3 제8회 `2008 게임음악회`가 20일 강원도에서 열려

2008 게임음악회는 1부 국내 주요 온라인 게임들의 음악 동영상 상영과 e스포츠 시범 경기

에 이어, 2부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행사 내내 자리를 뜨지 않은 채 게임 음악과 가수들의 열창에 뜨겁게 환호했다.

*행사 사이트 : <http://gamemusic.dt.co.kr/>

[관련기사]

설원의 밤을 녹인 게임음악 [디지털타임스 2008년 12월 21일] 외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아날로그 음악 산업의 사양화와 디지털 음악 산업의 성장

1.1.1. 음반 판매 저조 - 롱테일 법칙을 뒤집다

MCPS-PRS의 Will Page와 Andrew Bud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인터넷에 판매를 목적으로 올라온 1,300만개의 곡들 중 1,000만개 이상의 곡이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는 산업 업계 전체 이익의 80%가 위력을 발휘하는 약 52,000개의 트랙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전체의 0.4%가 이익의 80%를 창출해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다양하고 특성화 된 상품들의 판매 총액을 합친 것이 주류 상품들의 판매 총액보다 많다는 '롱테일의 법칙'을 뒤집는다. 즉, 앨범시장의 123만 앨범들 중에서 나머지 85%는 한 장도 팔리지 않은 채 오직 173,000개만 한명 이상의 소비자가 구매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악 산업에서 아날로그 음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리서치 분석 회사인 Gart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상품으로서 CD의 생산은 2008년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D 시장의 수명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Gartner는 이와 함께 CD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온라인 및 디지털 음반 부분의 투자로 전환하고, CD는 콘서트에서 기념품으로 팔거나 그냥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선전도구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 새로운 매체가 나오면서 기존 매체를 위협하는 모습은 음악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카세트테이프와 CD의 세대교체가 그러했듯이, CD 산업의 쇠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온라인 및 디지털 음반 산업이 과도기를 지나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관련기사]

Most music didn't sell a single copy in 2008, [guardian.co.uk, Tuesday 23 December 2008 GMT]
Gartner to Music Industry: Dump the CD Already, Will You?, [Tech-Ex, Tuesday 23 December 2008]

1.1.2. Warner Music이 YouTube에서 자사 뮤직비디오를 삭제하다

새로운 라이선싱 조건 협상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워너 뮤직 그룹이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에서 수 천편의 자사 뮤직 비디오들을 삭제했다.

뮤직 비디오 스트리밍은 자신의 비디오 광고 사업을 확대하기 원하는 구글과, 자신들의 온라인 콘텐츠 보충을 기대하는 다른 미디어 회사들 간의 새로운 전장이다.

금요일의 한 블로그 포스트에서, 유튜브는 자사의 사용자들에게 워너 뮤직의 콘텐츠 삭제를 공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체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너 뮤직은 마이스페이스 뮤직이나 AOL과 같이, 이미 라이선스 협정을 맺은 웹 사이트에는 계속 자사의 뮤직 비디오를 배포할 예정이다.

- 유튜브와 워너 뮤직 사이의 분쟁 원인은 아날로그 음반 산업이 쇠퇴하면서 디지털 음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주요 아날로그 음반 업체인 워너 뮤직과 동영상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유튜브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분쟁의 결과가 디지털 음원산업의 라이선스 협정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Warner Music Removes Its Videos From YouTube as Licensing Talks Stall, [New York Times, United States - Dec 21, 2008]

1.2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의 저작권 문제

1.2.1 자유로운 음악 다운로드 모바일까지, 그러나 저작권 분쟁은 아직

점점 더 많은 수의 회사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노래 찾기나 개인적인 라디오스테이션에서의 재생 목록을 만들고 고치는 등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American Media Services Interactive의 Andy Whaltley에 의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러한 스트리밍 미디어는 지금과 같이 브라우저 형태로 온라인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이동 통신 매체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널리 퍼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기존의 무료 음악 제공 사이트는 배너나 광고에 의해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장치로 시장이 넓어진다면, 그러한 수익 모델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배너나 광고를 볼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Whaltley는 기부 형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비자들은 매달 돈을 내고 음악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냉담하다.

따라서 음반 회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작권 관련,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 저작권 분쟁은 음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지속되어 왔지만 그 매체가 인터넷이 아닌 이동통신으로 넓혀지면서 그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음원 시장의 성장은

소비자에게는 개인 취향에 맞는 음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더 힘들어 진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Free music-on-the-go coming to mobile devices, but licensing questions remain, [THE CANADIAN PRESS, 24 Dec 2008]

1.2.2. Facebook의 Project Playlist 폐쇄

소셜 커뮤니티 네트워크인 Facebook은 최근 음원 공유 사이트인 Project Playlist를 음악 업계의 요청에 따라 폐쇄했다. 이것은 라이벌 사이트인 MySpace가 같은 일을 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해 RIAA는 저작권 마찰로 인해 Facebook 측에게 Project Palylist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었으나, 최근 다시 의사소통을 재개하여 결국 폐쇄를 이끌어냈다.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며 음원을 공유하는 Project Playlist가 업계의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RIAA가 ISP와의 새로운 협정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완화한 반면 사이트에 대한 제재는 다소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원천적인 불법 다운로드를 막음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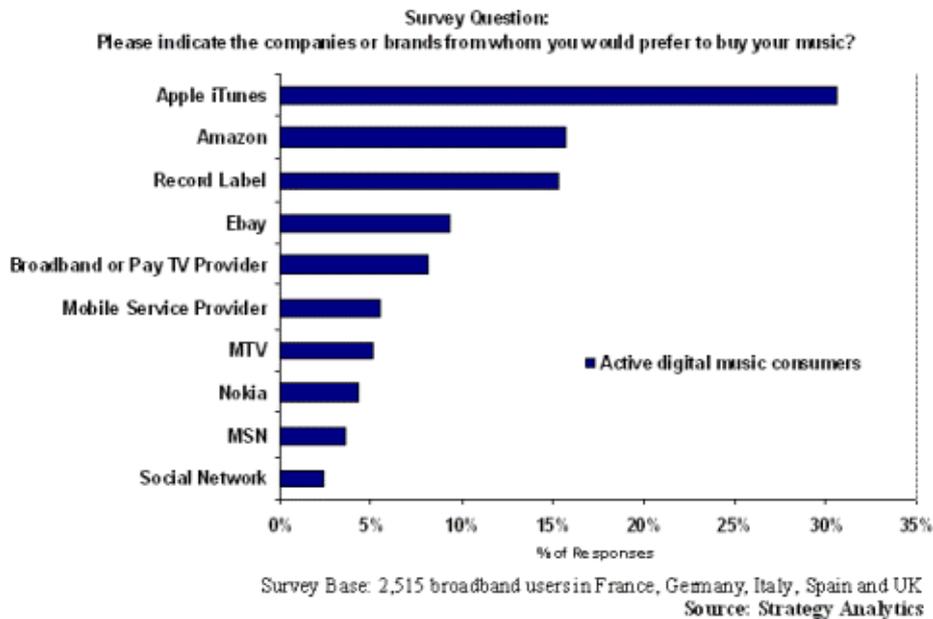
Facebook silences Project Playlist widgets, [CNET News, CA - Dec 23, 2008]

1.3 디지털 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1.3.1. 유럽에서 아이튠은 여전히 독주 중

전 유럽지방에서 컴퓨터와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을 때 애플의 아이튠(iTunes)을 이용해 음악을 구매하는 사람이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두 배가 많다는 것이 Strategy Analytics사의 연구 결과에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 사는 2,515명의 아이튠 사용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음악 구매에 관해 이야기 할 때 Casual user와 Heavy user간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Heavy user가 Casual user들보다 아이튠이나 음반 회사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악을 사는 데 더 강한 선호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Strategy Analytics: iTunes Favored 2-to-1, [Earthtimes (press release), UK - Dec 22, 2008]

1.3.2. 음악 사업의 새로운 시장, 게임 !

뮤지션들은 음반을 통해서 보다 게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판매량이 들쭉날쭉한 음반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밴드들이 살아남을까? 놀랍게도 Guitar Hero, Rock Band같은 게임들은 많은 수익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한다.

미국 음반 산업협회 구성원은 2007년 104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이것은 지난해보다 11.8% 하락한 것이고, 올해도 또 다른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로 비디오 게임의 판매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에서 홀로 95억 달러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ESA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8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Talking Head의 David Byrne의 말에 따르면, 미디어를 통해 듣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이 음반 판매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많다.

Guitar Hero 3은 지난 가을 출시된 이후에 7500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고, 게임을 위한 추가 곡은 550만 달러였다.

-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OSMU가 중요시 되고 있다. 게임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음악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임에서 음악은 더 이상 배경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을 게임에서 즐기고 게임에서 음악을 즐기는 이러한 흐름은 게임시장의 성장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관련기사]

What Guitar Hero and Rock Band mean for the music industry, [Neoseeker Dec 22, 2008]

1.4 미국음반산업협회, 집단소송을 단념하다

미국음반협회(RIAA)는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했다고 판단되는 네티즌들에게는 무자비 하리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초중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없이 소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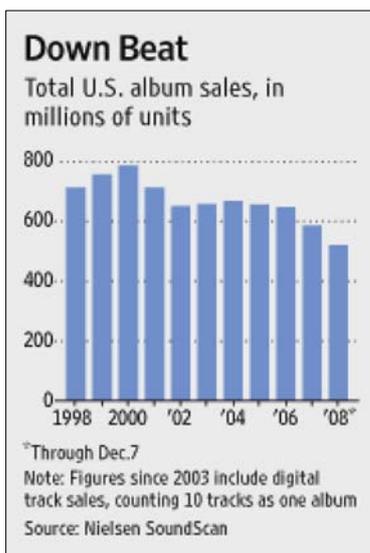
걸어왔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RIAA가 제기해온 소송건만 무려 3만5천건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불법 음악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법정싸움을 벌여온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소송이 아닌,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월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 기사 ('Music Industry to Abandon Mass Suits')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음반 해적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논의의 핵심은 RIAA가 인터넷에서 불법 음반 유통을 확인하면 ISP측에 이를 통보하고, ISP는 불법 유통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ISP는 불법적인 음악 유통이 고속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만큼 불법 유통자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RIAA는 이같은 내용에 관해 일부 ISP와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낸 상태라고 했지만 어느 ISP가 동참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RIAA는 불법적인 음반 유통과 관련해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송이 온라인상의 해적 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오히려 RIAA가 무리하게 법에 의존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대중과의 관계만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RIAA의 전략 수정은 불법 복제에 대한 정책이 '채찍'에서 '당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악성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지만 ISP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들에게 '위법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불법 행위 차단에 효과가 클 것으로 RIAA측은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컨설팅사인 빅삼페인의 에릭 가랜드 대표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RIAA가 소송을 통한 해법을 강구해왔으나 채찍보다는 당근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RIAA의 전략 수정을 환영했다.

미국 음반 업계의 이같은 전략 수정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Music Industry to Abandon Mass Suits [월스트리트저널 2008-12-19]

1.5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첫 디지털판권보호 연구보고 발표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에서 주최한 “2008 첫 번째 중국 판권연회(2008首届中国版权年会)”가 최근 북경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2월 5일, 이번 행사의 주최 업체인 중문온라인(中文在线)은 “인터넷환경에서의 판권보호”(“网络环境下的版权保护”)라는 테마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중문온라인(中文在线) 이사장 통쯔레이(童之磊)는 이번 간담회에서 <2008 중국 디지털판권보호연구보고(中国数字版权保护研究报告)>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첫 번째로 발표된 디지털 판권보호에 대한 연구보고서로서, 보고서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판권보호, 디지털판권의 집계관리, 휴대폰 관련서비스의 출판판권보호 등 디지털 판권산업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판권보호의 현주소가 제시되었으며, 일부 문제에 대한 결론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중문온라인(中文在线)에서 중국 출판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연구한 보고서로 앞으로 매년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디지털 판권보호 연구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며 국가별 출판과학연구기구(国家级出版科研机构)에서 디지털출판 선두기업과 손을 잡은 새로운 시도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知识产权庭) (原庭长) 쟡쯔페이(蒋志培) 전 법정장이 사회를 맡았고, 신문출판총서 과학기술 및 디지털출판사(新闻出版总署科技与数字出版司) 사장(司长) 쟡이쥘(张毅君)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북경대학로스쿨(北京大学法学院) 쟡핑(张平) 교수,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지적재산권법정(北京市高级人民法院知识产权庭) 법정장(庭长) 천쥔촨(陈锦川), 중국전자정보콘텐츠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研究院) 당서기(党委书记) 리잉(李颖), 중문온라인(中文在线) 이사장 통쯔레이(童之磊)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또 중국 국내외 100여명의 유명인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환경에서 디지털산업 관련 판권보호와 이의 실제집행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관련자료 : 중국신문출판망(中国新闻出版网)]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물지마 '한류 여행상품', 한류열풍에 찬물

국내 여행사의 한류 여행패키지로 일본 팬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23일 오후 7시, 비가 내년 초 선보이는 패션브랜드 런칭기념 패션콘서트가 열린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앞에서는 150명의 일본 관광객이 주최측에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국내 한 여행사가 비 측과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관광객 150명을 이날 행사장에 입장시키려 하자, 좌석예약도 초대권도 없는 이들의 입장을 주최 측이 제지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행 패키지는 비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2만엔(한화 약 30만원) 상당의 1일 코스 상품으로 문제의 여행사는 철저한 신분 확인 후 입장권이 배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일본 관광객들에게 입장이 불가함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관광객들은 공연이 시작된 뒤에도 입장이 불가능해지자 큰소리로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비 소속사 관계자들은 소란이 커지자 A여행사 관계자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날 A여행사 관계자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했고, 경찰 관계자 역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측은 "한류를 이용한 여행 상품 개발은 좋은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스타와 합의되지 않은, 혹은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여행 상품은 철저하게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문지마 한류투어' 뿔난 비 스타뉴스
 "비도 몰랐던 '한류 여행상품', 日 비 팬들 울리다" [아시아 경제신문 2008-12-25]

2.2 한류붐, 중국에 이어 미국 음악 산업에까지 이어질까

국내 음악시장을 주도하는 JYP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등의 소속사들은 최근 한류의 해외 음악시장 진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이들 소속사의 가수들이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최고의 음악시장인 미국의 음악시장에 까지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소속 가수들인 원더걸스, 2PM, 리우신, 은 중국 최고의 음악프로그램 CCTV '동일수가'의 한국공연 무대에 올라 행사의 중심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100m에 이르는 초대형무대와 수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는 공연으로 중국 가수들조차도 이 무대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라고 전해진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JYP엔터테인먼트(한국)와 JYP 차이나의 소속가수들이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동일수가'의 뜻 깊은 무대에 서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오래 전부터 미국 시장을 준비해온 가수들이 최근, 아시아 정상급 스타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대중음악계에서도 인정받겠다는 각오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보아'는 데뷔 싱글 'Eat You Up'을 온라인을 통해 처음 선보인데 이어 곧 음악채널 MTV 스페셜 프로그램 '보아 라이브 인 뉴욕'에 출연하였고 징글 볼(Jingle ball) 콘서트를 통해 리한나, 푸시캣 돌스 등 미국 내 인기 뮤지션들과 한 무에 서는 등 활발한 미국 활동에 돌입했으며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한류 붐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로 국가 이미지를 상승 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아시아 음악시장에서의 성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시장까지 진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와 세븐 역시 준비해오던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여름부터 미국 LA에 머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준비해온 세븐은 당장 내년 1월 데뷔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며 이달 말 국내 활동을 마무리 짓는 비도 내년 하반기 미국에서 데뷔 음반을 발표한다.

[관련 기사]

비·원더걸스·2PM 등 중국음악프로그램 출연 [일간스포츠 2008-12-19 11:08]

한국가수 내년 美시장서도 훨훨 날까? [헤럴드경제 2008-12-23 14:01]

[이사람] "美진출 보아 내년엔 결실 기대" [헤럴드경제 2008-12-24 14:56] 외